

NEWS

2025년 4월 9일 수요일

‘광주형 라이즈 사업’ 본격화… 17개 대학 선정

전남농기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청년 창농타운 회원사 2곳 선정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청년창농타운 회원사인 ‘로컬오누이’와 ‘아따달다’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로컬오누이’(대표 편호준)는 지역 농가와 협업체 로컬 농산물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며, 수출 기반의 로컬푸드 산업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아따달다’(대표 윤지환)는 에어로 타워 기반의 재배 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이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두 기업은 유형별로 최대 5000만원(개인형)과 8000만원(협업형)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으며, 멘토링, 네트워킹 프로그램, 연계 사업 등 후속지원도 제공받게 된다.

특히 이번 선정은 창농타운 운영 4년차를 맞아 외부 사업과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창업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달 25일부터 창농기업 간 협업과 아이디어 발굴을 촉진하는 ‘네트워킹 & 해커톤’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시정참여 등 30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예산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대상 사업은 광주시 소관 사무인 시정참여형, 청년참여형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시정참여형은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시민 수혜도가 높은 5억원 이하 사업이다. 청년참여형은 일자리, 창업, 맞춤형 교육, 저출생 등 청년정책 사업으로 예산 제한 없이 제안을 받는다.

다만 민원성 및 특정단체 사업 중복성 사업, 일회성 공연 축제,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은 공모사업 심사에서 제외한다.

참여는 광주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광주시 주민참여시스템’과 ‘시민광장 광주온(ON)’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청년 혁신 등 4대 프로젝트·14개 과제 수행

사업비 749억 투입…내달 대학과 협약 체결

광주시는 ‘광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사업’을 수행할 17개 지역대학을 선정, 발표했다.

광주라이즈사업은 인재 스킬업(SKILL UP), 기업 밸류업(VALUE UP), 지역사회 그로우업(GROW UP), 대학 이노업(INNO UP), 범부처·초광역 브릿지업(BRIDGE UP) 등 5대 업(UP) 프로젝트, 16개 단위과제를 추진한다.

광주시는 이 중 인재 스킬업, 기업 밸류업, 지역사회 그로우업, 대학 이노업 프로젝트를 공모했으며, 지난 3일 광주라이즈 위원회를 열어 14개 단위과제, 17개 대학(과제별로는 63개 대학)을 선정했다.

또 총 사업비 749억1000만원의 과제별 평가등급 배분방식을 결정했다.

광주시는 대학별로 선정 결과를 통지하고, 이의신청 기간(10일)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사업계획서 평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수정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5월초 광주라이즈사업 전담기관인 광주라이즈센터와 17개 대학의 협약을 체결, 라이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라이즈 사업을 통해 교육, 산업, 문화·복지·정주를 연계하는 라이즈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의 주력산업인 모빌리티·에너지·반도체·인공지능 산업의 석·박사

인력 1000명 배출, 창업기업 3만5000개 달성, 대학 졸업 후 지역 내 기업 또는 기관에 취업하는 지역 정주 취업률 40%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인재 스킬업 프로젝트’는 3개 단위과제에 대해 13곳(단독 또는 컨소시엄 대학)을 선정했다. 이들 대학은 지역산업 맞춤형 청년 혁신인재, 모빌리티·에너지·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고교연계형 예비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기업 밸류업(VALUE UP) 프로젝트’는 3개 단위과제에 15곳이 선정됐다. 대학과 기업의 동반성장 구현을 목표로, 광주 창업밸리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광주 일자리플랫폼과 연계해 지역인재의 지역 취업 지원을 위한 대학-지자체-기업 간 취업지원 플랫폼을 운영한다.

특히 대학이 보유한 인력·시설·장비 등

을 지역기업이 제품개발 및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실증스튜디오 구축·운영에 나선다.

‘지역사회 그로우업(GROW UP) 프로젝트’는 4개 단위과제에 17곳이 선정됐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운영,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지역문화예술·관광 전문인력양성, 문화예술관광 비즈니스 모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역초등학교 놀봄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이노업(INNO UP) 프로젝트’는 4개 단위과제를 18곳에서 수행한다. 대학 시설공간을 지역민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 대학 간 공유교육 체계구축, 직업평생교육,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라이즈 사업

을 통해 지역인재의 취·창업 및 지역 정부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라이즈위원회는 라이즈(RISE) 체계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대학·경제계·산업계·문화계 등 각계각층 대표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광주시는 지난 2월 사업 공모를 통해 17개 대학, 81건의 과제를 접수받았다. 중앙과 지역의 학계·교육계, 경제·연구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검토, 대면 평가(발표와 질의응답), 종합 심의 등 대학별 사업계획서를 평가했으며, 광주라이즈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미 관세 대응…전남 기업 피해 최소화 머리 맞대

비상경제 대책 회의…산업별 영향분석 등 전방위 논의

전남도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25%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함에 따라 8일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어 지역 기업 피해 최소화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진행됐다. 전남지역 경제·산업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대응 태스크포스(TF) 위원과 롯데케미칼 점단소재주, 포스코HY플린비탈퓨, 포스코필바리튬솔루션㈜, 나주배원에너지협동조합, ㈜신안전사김, ㈜BK에너지 등 기업 대표, 관계자도 참여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기본관세를 발효했고, 9일부터는 60여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효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추가 15%의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이번 관세 부과로 전남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경쟁력을 저하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등 무역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철강, 석유화학, 이차전지, 농축산 및 수산 분야 등 주요 산업별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전방위적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선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한 광양

항 활성화를 비롯해 탄소중립, 스마트화 제조공정 설비 개선 지원 등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분야 배터리 산업 다각화, 수출 컨설팅(통상닥터)을 활용한 찾아가는 통상애로센터 운영, 수출기업 융자 확대 등 경영안정 지원, 한류 식품 중심 현지화 전략, 유튜브·마케팅 채널 다각화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전남도는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우려)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100억원)을 지원하고, 수출기업 지원보증(50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남도는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업종별 자체 지원대책을 구체화하고, 정부 차원의 대미협상 강화 및 금융·자금 등 지원대책도 조속히 강구토록 권의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전남 의료취약지에 공보의 477명 배치

전년보다 57명 줄어…대안정책 마련 토론회 추진

전남도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1차 의료와 공공보건 업무에 종사할 신규 공중보건사의 194명을 포함한 477명을 9일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치 인원은 238개 보건기관, 지방의료원 3개소, 취약지 병원 응급실 19개소, 병원선 2척 공립병원 등 14개소에 배치된다. 배치된 공중보건사의는

1차 의료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게 된다.

이번에 배치된 공중보건사의는 전년보다 57명(감소 의과 50명·한의과 9명·중가 치과 2명) 줄어든 상황이다. 주요 원인은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 감소,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장기 복무기간(36개월)에 비해 짧은 현역병(18개

월) 선호 등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도는 1979년부터 배치를 시작한 공중보건사 제도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1차 의료 해결 대안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를 통해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시군보건소, 전남도의사회, 공중보건 의사, 취약지병원협회가 참여한 공중보건 의사 감소 대응 전략회의를 진행하고, 향후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도출된 대체 정책과제는 이번 대선 정책공약으로 반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기량 뽑내는 참가자들 8일 광주자연과학고에서 열린 '2025년도 광주시기능경기대회'에 화훼장식부문에 참가한 선수들이 기량을 뽐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지리산 南岳祭

제81회 지리산남악제 제44회 군민의 날 행사

군민 한마당

시가행진
읍·면 입장식
군민의 날 기념식
군민 체육대회
군민 노래자랑

제례·공연 마당

남악제례
헌공다례
읍·면 농악경연대회
읍·면 율놀이 대회
길거리 씨름대회
동춘서커스 공연
백두한라예술단 초청 공연

전시·체험 마당

우리차 시음회
전통떡 만들기
민속놀이 체험
사진작가협회 작품 전시회
한국미술협회 구례지부 전시회

경연·참여 마당

남악서예백일장 및 작품전시회
남악제 글짓기 대회
내고장문화재 그리기대회
전국 정가 시조경창대회

2025. 4. 19. 토 ~ 20. 일

화암사 시설지구 및 공설운동장 일원

주최·주관 | 지리산남악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후원 |

문의 | 061) 780-2727